



광주시향 일본 도쿄 공연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 ... 일본오케스트라연맹과 공동 주최
지휘 김홍재·피아노 협연 문지영 ... 27일 광주문화예회관 공연도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일본 도쿄에서 공연을 갖는다. 광주시향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일본 도쿄예술극장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개최한다. 광주시향의 해외 공연은 지난 2007년 가나자와, 2010년 도쿄와 오사카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 2010' 무대에 이은 세번째 행사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해외 공연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은 (사)일본오케스트라 연맹과 공동으로 기획해 의미를 더한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 오케스트라의 일본 공연이 주로 초대 형식으로 진행되던 관례를 깨고 일본 오케스트라연맹과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입장권을 유료 판매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시향은 초대권 발매를 최소화하고 유료표 예매(S석 5000엔, A석 3000엔)를 진행중이다. 흥보도 강화해 지난 9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필칭! 한국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온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아쉽게도 현재 상임 지휘자가 공석인 관계로 이번 일본 연주회는 김홍재(울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씨가 객원지휘자로 참여한다. 울산시향을 이끌고 미국 카네기홀 공연, UN평화콘서트 등을 진행했던 김 지

휘자는 세계적인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를 사사했으며 교토필하모니 상임지휘자 등을 역임했다. 또 작곡가 윤이상 문화에서 작곡법과 지휘를 공부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김 지휘자는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까지 무국적자로 살아왔으며 클래식 뿐 아니라 미야자키 히야오의 음악을 녹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레퍼토리도 눈길을 끈다. 첫 곡은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아리랑 판타지'다.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이 곡은 특히 1978년 김 지휘자가 도쿄교향악단을 이끌고 일본에서 세계 초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도 관객들을 만난다. 협연자는 피아니스트 문지영. 여수 출신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인 문씨는 지난해 열린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며 화제를 모았다. 부조니 콩쿠르는 이탈리아의 세계적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페루치오 부조니를 기리기 위해 1949년 창설된 대회로, 클래식 스타 알프레드 브렌델, 마르타 아르헤리치 등을 배출한 대회다. 2001년 격년제로 바뀐 이후 단 3명만이 1위를 수상했으며 한국인으로는 1980년



지휘 김홍재

서혜경, 1997년 이윤수가 '1위 없는 2위'를 차지했다. 문씨는 제네바 국제콩쿠르에서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피아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피날레 곡은 차이코프스키가 자신이 작곡한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이라며 만족을 표한 '교향곡 4번'이다. 공연이 열리는 1999년 규모의 도쿄예술극장(도쿄 메트로폴리탄)은 '극동의 클래식 메카'로 불리는 클래식 전용홀이다. 도쿄도가 운영하는 극장으로 1990년 개관 후



피아니스트 문지영

2012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유명한 나가타 음향회사가 음향 시설을 총괄한 심포니 전용홀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로알 콘세르토 허바우, 빈 필하모닉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다녀갔다. 한편 광주시향은 일본 공연을 앞두고 같은 레퍼토리로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하춘화 가요 기념관' 영암군에 건립 검토

하산면 계천리 출신 ... 하춘화씨 영암 방문, 전통평 교수와 논의

영암군이 가수 하춘화 가요 기념관 건립을 고려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영암군은 가수 하춘화씨(사진)가 지난 16일 영암을 방문해 전통평 교수와 기념관 건립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부모가 영암군 하산면 계천리 출신으로, 영암과 인연이 깊다. 하씨 부모는 60여 년 전 부산으로 이주해 하씨를 낳았다. 하씨는 지난 1987년 노래 '영암 아리랑'을 발표하며 영암에 대한 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념관 부지는 월출산 계곡에 조성된 기찬랜드로 예상되고 있다. 하씨는 전 교수와 함께 기찬랜드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풀장 등 피서시설이 조성된 기찬랜드 일대에는 대한민국 가요 산조의 효시로 불리는 김장조 기념관과



항일독립운동가이자 건국 유공자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낭산 김준연 기념관이 위치하고 있다. 또 2018년에는 조훈현 국수 기념관도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 신축비 마련, 전시물 확보 등 하춘화 기념관 건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양림의 소리를 듣다' 행사 모습

무성영화, 음악과 만나다

'순수' 25일 오웬기념관

'무성영화와 음악의 만남.'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에 위치한 역사를 들려주는 시간을 마련하며 영화평론가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연구소장 전찬일 씨가 영화 '신입생'과 해롤드 로이드에 대한 이야기 시선 첫공연을 시작한다. 올해 건립 102주년을 맞은 오웬기념관(양림동 기독간호대학교 내에 소재)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무성영화 '신입생 The Freshman'(1924·70분)을 무성영화 전문 밴드 S.O.M(sound of movie / 영화의 소리)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는 무대다. S.O.M은 드럼 연주자 김훈, 피아니스트 김다인으로 구성된 무성영화 전문 밴드로 영화의 극적 흐름에 맞춰

직접 구성한 라이브 연주를 들려준다. 변사는 이정현씨가 맡았다. 공연 전에는 역사적인 건축물에 얽힌 역사를 들려주는 시간을 마련하며 영화평론가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연구소장 전찬일 씨가 영화 '신입생'과 해롤드 로이드에 대한 이야기 시선 첫공연을 시작한다. '신입생'은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과 더불어 미국 무성 코미디 영화의 3대 거장인 해롤드 로이드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순수'는 지난 4년 동안 양림동 근대역사문화유적에서 다양한 기회로 '양림의 소리를 듣다' 공연을 진행했으며 행사마다 장소와 인물에 얽힌 스토리를 소개해 문화 체험과 역사 체험을 함께 제공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성규



이상록

꽃보다 아름다운 음악회

시각장애 1급 장성규 클라리넷 연주 ... 이상록·이상화 등 출연

27일 광주 씨목씨목 다목적 홀

(사)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는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 37회 행사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협동조합 '시민의 꿈'이 운영하는 광주 풍암지구 씨목씨목 다

목적홀에서 열린다. '꽃보다 아름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1급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씨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광주 세광학교와 광주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카셀음악대학에서 수학한

장씨는 미국 존스홉킨스 피바디음악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또 피아니스트 이상록, 테너 이상화, 싱어송라이터 류의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 레퍼토리는 몬티의 '차르다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리스트의 '위안', 차이코프스키의 '벚노래',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등이다. 또 류의남 씨가 인기가수 김창완의 곡을 이상록씨가 편곡한 '정춘'을 노래한다. 문의 062-384-2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